부서진 것들의 가치



사천왕문 건물지에서 발견된 소조(塑造) 사천왕상 장식편 중 일부. 소조품은 연질이어서 부서지기 쉽고 세척 시 원재료가 묻어나올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특별전
'산산散散 · 부서진 뒤 알게 된 것들'
9월 11일~2019년 3월 3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깨지고 부서진 유물들의 가치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이하 · 회암사지박물관)은 9월 11일부터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산산散散 · 부서진 뒤 알게 된 것들'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회암사지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중 깨지고 부서져 완전한 형태를 이루고 있지 못한 유물 100여 건을 선보인다. 원형을 유지하지 못한 유물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전시다. 조각 난 유물들은 보잘 것 없어 보이기 쉽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오랜 세월의 이야기는 외형과 상관없이 가치를 지닌다. 원형과는 다른 조각 난 모습의 조형미와 변할 수 없는 역사성이 그것이다. 이번 전시는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조각 난 유물들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전시라고 할 수 있다.

유물에 담긴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보존 · 복원 · 복제처리 과정과 유물을 소개하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의 관람과 교육, 체험 등 유물을 매개로 한 경험도 유물의 존재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활용방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청동 광배편', '소조 사천왕 장식편', '토수', '잡상' 등의 유물과 사진, 영상, 체험 등을 선보인다.

특히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박물관의 수장고 환경을 일부 재현하여 유물의 보관관리 환경을 제시하며, 동시에 복수의 관람객이 동시에 깨진 유물을 붙여 복원해보는 미디어체험 등을 통해 관람객 스스로에게 문화유산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

양주 회암사지(사적 제128호)에서는 1997년부터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10만여 점 이상의 많은 유물이 출토됐다. 오랜 시간 땅 속에 묻혀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형태의 유물보다는 대부분이 조각으로 발굴되었으며, 그 훼손의 정도가 심각했다. 완전하지 못한 유물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 공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전시는 그러한 유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취지다. 전시는 총 3부로 편성됐다.

▲1부 '과거에서 현재로'에서는 깨지고 부서진 작은 유물 하나라도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작은 유물 하나하나가 과거의 기억을 품은 것이고, 그것들은 현재를 오롯이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2부 '현재에서 미래로'에서는 유물의 가치를 미래로 전달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손상을 방지하고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 원형을 추정하여 실제 유물의 형태로 복구하는 복원, 그리고 그 형태를 그대로 옮겨 새로운 오브제로 창조하는 복제 등 박물관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보여준다.

▲3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세대'에서는 우리 모두가 유물의 주인임을 이야기한다. 문화재는 한 번 손상되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문화재를 찾고, 즐기고, 보살피는 노력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이어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양주 회암사지는 조선 전기의 왕실문화가 풍부했던 대사찰이었다. 따라서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 역시 왕실의 고급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도자기, 기와 등이 1만 점 넘게 출토되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해 많은 유물이 훼손되었다.

원형을 유지하지 못한 유물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작은 유물 한 조각의 발견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기존 역사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랜 세월을 지내온 유물은 그 자체로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물의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물 한 조각에도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탐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시선이라 할 수 있다. 미처 알아보지 못한 유물의 가치가 여러 시선을 거쳐 다양한 분야로 확대 재생산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세계적 아티스트가 재해석한 불교

'장욱진과 백남준의 붓다' 展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9.14~12.2

불교적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가 열린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은 하반기 기획전으로 2018년 9월 14일부터 12월 02일까지 '장욱진과 백남준의 붓다'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박수근, 이중섭과 함께 우리나라 근 ·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서양화가 장욱진과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공연과 전시로 새로운 예술을 전개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불교적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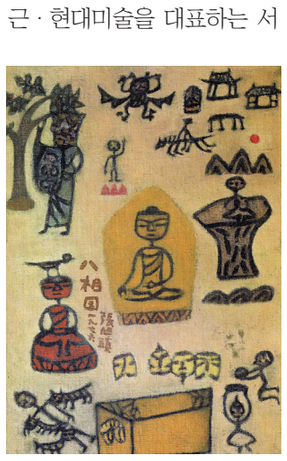
장욱진의 작품세계는 불교 선종의 '진리의 깨달음은 문자를 떠나 곧바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서 본성을 보아야 한다'는 '불립문자(不立文字)'에서 영향을 받아 사물의 순수한 본질만을 남겨 간결하고 압축된 조형성으로 표출된다.

백남준은 종교적 성자인 '부처'를 현대문명의 과학기술과 접목하여 관람객과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이번 전시에는 특히 장욱진의 '팔상도(1976)', 백남준의 'TV부처' 등 불교적 세계관에서 영향을 받은 두 작가의 대표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뜻하는 '붓다'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낸 장욱진과 백남준의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예술의 본질에 대해 살펴본다.

▲장욱진(1917~1990)은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제2회 전조선 학생미술전람회(1937)에서 최고상을 수상했고, 한국전쟁 이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1954~1960)로 재직했으며, 6년 만에 작품창작을 위해 퇴직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며 동화적이고 심플한 선 표현과 독창적인 색채를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백남준(1932~2006)은 일본 동경대학에서 미술사와 미학, 음악학, 작곡을 공부했다. 1963년 텔레비전의 내부 회로를 변조하여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개인전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을 통해 미디어 아티스트의 길에 들어섰다. 1984년 뉴욕과 파리, 베를린, 서울을 연결하는 최초의 위성중계 작품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발표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박재완 기자



장욱진 作, '팔상도' 캔버스 유채



백남준 作, 'TV부처', 폐쇄회로카메라 가변설치

꽃무릇 선운사 가을축제 열다

제11회 선운문화제, 선운사 일대 9월 29~30일



지난해 열린 선운문화제

꽃무릇이 아름다운 도솔산에 축제가 열린다. 고창 도솔산 선운사(주지 경우)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선운사 일대에서 제11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한다.

선운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가치를 지역민들과 향유하고 지역축제의 장을 넘어서기 위해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전통과 상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선운문화제는 헌다례, 보은염 이운행사, 산사음악회, 버스킹공연, 전통놀이 ·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꽃무릇시화전, 경판이운식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으로 진행된다.

29일 열리는 산사음악회는 국악공연 전통타악& 연희 '굿(GOOD)'을 시작으로 동서양 클래식의 만남 퓨전국악하나연과 팝페라 한아름, 뮤지컬 갈라 그룹 봄날, 재즈와 탭 뮤직 밴드 그라운드잼, 재즈밴드 말로 등이 출연해 공연한다. (063)561-1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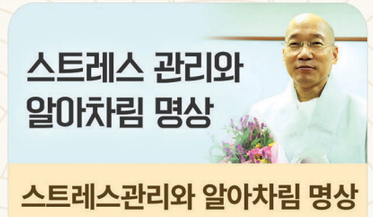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

천만불자들의 PICK!
BTN 불교TV 대표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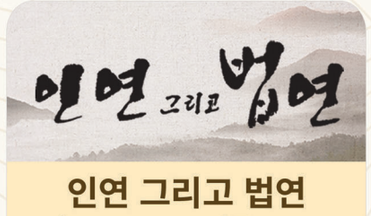
드라마 붓다
월·화 13:30



스트레스관리와 알아차림 명상
화 15:00, 23:00



산은 산 물은 물
목·금 14:00



인연 그리고 법연
수 09:30, 14:30 / 금 08:30



일감스님의 만행
화 14:30, 20:30



원순스님의 능엄경강설
금 13:00, 22:00



오늘은 좋은날 비긴즈
금 09:00, 16:00



진명스님의 지대방
화 11:30, 19:30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
수 08:30, 21: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수 11:30, 22:00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Btv HD 305번 U+TV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